

호남·수도권 고속철도 운영 경쟁 이루어져야

- 공단이 건설비 50~60%를 부담하는 부채 국민 부담 안 되어야 -

공단은 2015년 개통될 호남 및 수도권(수서~평택) 고속철도는 경쟁을 통해 운영기관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공기업이 건설하는 도로·공항·항만은 운영주체들이 각각 차량, 항공기, 선박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철도공사는 유일하게 정부예산으로 차량까지 구매하는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현재 고속철도 건설재원은 철도시설공단이 호남 50%, 수도권은 60% 이상을 부담하게 되므로 2015년에는 부채가 24조원 이상 누적되어 연간 이자만도 1조원(1월 27억원) 이상이 되어 투자비 회수 차원에서도 운임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여 이용객을 늘리는 기관에서 운영할 때 건설부채 상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부고속철도는 코레일이 독점 운영하면서 28%이상 흑자 운영하고 있음에도 매년 1000억원의 선로사용료만 내고 있어 공단 부채는 17조원에 이르고 하루이자가 23억원으로, 부채상환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KTX 운영수익은 건설부채 상환, 개량 및 유지보수비로 충당해야 함에도 교통카드 이용으로 매표업무가 거의 없는 수도권전철 매표원 유지, 단순업무 직원도 3급(차장)까지 자동승진, 열차운행이 없는데도 3조 2교대 근무 등 1인당 평균연봉 6천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로공사, 항공, 해운 매표 유사업무종사자 연봉 2,000만원 수준

또한, 정부가 코레일에 위탁한 유지보수 비용중 인건비 등에 85%가 사용되고 나머지 15%만 실제 유지보수 업무에 사용하여 광역역 탈선, 잦은 고장 및 지연 등이 발생함에도 철도 안전 대책이 미흡하여 이용객이 당초예산보다 훨씬 못 미치는 양상이 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세금과 공단부채로 건설되는 고속철도 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운임인하와 서비스 개선 혜택을 이용객들에게 돌려주면서 투자비 회수 등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레일 노·사가 함께 경쟁체제 도입시 산간벽지 등 일반철도 적자노선 폐지가

불가피하며,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영화 시도 운운, 대기업 특혜 의혹 및 정치적 음모 등 사안의 본질을 철저히 왜곡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노동 강도에 비해 턱없이 많은 인건비 등의 특혜를 누리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철도시설은 국가(공단)가 소유하고 관리하므로 민영화 시도 운운은 사실이 아니며, 대기업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경쟁 절차를 통하여 운영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특혜는 아니며, 코레일도 경쟁력이 있다면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KTX 운영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선로사용료의 증대로 건설부채 조기상환은 물론, 철도투자재원 확보 등 철도 투자·회수의 '순순한 구조' 확립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 영국의 철도구조개혁 성과

현재 영국철도는 구조개혁 초기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구조개혁의 성과를 시현 해 나가고 있음
 - 여객 수송량 : 304억인·km('94년)⇒424억인·km('05년), 40% ↑
 - 화물 수송량 : 130억톤·km('94년)⇒210억톤·km('05년), 62% ↑
 - 경영성적 : 265백만파운드 적자('94년)⇒273백만파운드 흑자('05년), 흑자 전환
 - 철도투자 : 2,342백만파운드('94년)⇒5,136백만파운드('05년), 119% ↑
 - 철도사고 : 940건('94년)⇒697건('07년), 26% ↓
 - 보조금 : 6,308백만파운드('07년)⇒3,960백만파운드('11년), 37% ↓

철도투자 확대하고 민생 어려움 해결 공단이 앞장

- 공단 '12년 사업비조기집행 추진 -

'12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철도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은 조기집행을 통해 정부소비, 건설수주를 증대시켜 어려운 국내경기에서 민생안정을 도모키로 하였다.

철도 투자예산은 국회에서 정부안 보다 560억원 증액된 6조 6,47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정부와 국회 등 공단 전 임직원의 관심과 노력, 적극적인 대외활동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공단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방향에 맞춰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정부에서 투자하는 재원을 대외여건 악화로 불안정한 경제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에게 조기에 되돌려 준다는 취지이다.

공단 예산 6조 5,483억원 중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 위주로 5조 6,878억원의 65.1%인 3조 7,028억원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 5조 2,817억원을 조기 배정하였으며, 1월 중 계속사업 계약 및 발주를 완료하여 사업비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계획목표 달성을 위하여 매일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독려할 계획이며, 사업관리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혁신본부 서정민 기자>

'12년 사업비조기집행 계획

(금액단위 : 억원)

사업명	'12년 예산	1/4분기		2/4분기		4/4분기		4/4분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56,878	16,899	29.7	37,028	65.1	43,258	76.1	56,878	100
고속철도	26,800	7,695	28.7	18,085	67.5	22,732	84.8	26,800	100
일반철도	18,408	5,600	30.4	11,442	62.2	11,860	64.4	18,408	100
광역철도	9,037	2,902	32.1	6,042	66.9	6,842	75.7	9,037	100
기타사업	333	107	32.2	180	54.1	245	73.5	333	100
시설개량	2,300	595	25.9	1,279	55.6	1,579	68.7	2,300	100

청평역 폐철도 생태공간으로 재탄생!

- 폐선교량 생태숲·야생초화원 조성 주민 품으로 -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용도 폐지된 경기도 가평군 청평역 인근 폐선교량 주변이 자연 생태 공간으로 복원되어 지역주민들의 품으로 되돌아간다.

공단은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5월부터 이 곳 9,500㎡ 폐선부지에 폐교량(160m)을 생태관찰로로 바꾸, 생태숲·야생초화원을 조성하고 철도자갈을 활용한 생태옹벽을 설치하는 등 철도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한다.

본 사업으로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호명산 등산객들에게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철도로 인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길 품질안전경영처장은 “신선 철도건설로 용도 폐지된 폐선부지를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건설공사 -

kick-off 미팅

건설본부는 지난 11일 21층 상황실에서 설계심의위원, 공단 및 철도공사 협의체 위원, 용역사 등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덕하차량기지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덕하차량기지는 일괄입찰 공사로 '11.5.24일 입찰공고 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설계평가를 거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실시설계격자로 선정되어 '12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3년에 착공 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는 기본설계 현황 및 실시설계 분야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후 심의위원 및 분야별 협의체 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다.

조순형 건축/설비처장은 이 자리에서 덕하차량기지는 철도공사, 공단 전 문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1개 분야의 복합공정사업 인 만큼 상호 인터페이스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건설본부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수요를 재검토하여 과잉시설로 인한 예산낭비와 유지보수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규모를 최적화하여 고품격 경제적인 차량기지를 건설 할 계획이다.

<건설본부 강대열 기자>



공단 임직원 경영성과 포상금 불우이웃돕기 기탁

- 예산절감 성과금 800만원 사회에 환원 -

공단은 임직원 10명이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해달라며 사내 사회공헌 기금에 기탁한 예산절감 성과금 800만원을 오는 설명절에 소외기관 나눔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설사업본부 양태순 과장은 “제 본연의 업무를 했을 뿐인데 성과금까지 받으니 뜻 깊은 일에 사용하고 싶었다”며 성과금 300만원을 사내 사회공헌기금에 쾌척했다.

양 과장은 설효성이 없고 과다 설비되던 터널 방재시설을 개선하여 246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지난 12월 29일 개최된 '11년 경영성과 공유대회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공단 관계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보내는 성과금은 설명절 소외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에 유용하게 사용할 계획”이라며 “공단 임직원 스스로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고 말했다.

계시판

금주의 주요뉴스(1. 2~1. 13)

- 인천공항에 이어 KTX도 민영화(경기신문 1. 2)
- 지금은 SOC 투자 줄일 때 아니다(아시아경제 1. 2)
- 수도권 GTX 시동 ... 용역비 50억 확보(조선일보, 신아일보 1. 3)
-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 첫 발(한국일보, 광주매일 1. 3)
- KTX 송정~목포 새 고속철도로(광주매일 1. 3)
- 홍천~용문 철도 '뜨거운 감자' 부상(강원도민일보 1. 3)
- 원주~덕소 복선전철 7월 시험운행(강원일보 1. 3)
- 동서고속철도시대 앞당겨야(강원도민일보 1. 3)
- KTX, 나머지 뒤로가면(동아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서울경제 1. 4)
- 코레일 철도안전권 정부에 넘긴대(한국일보 1. 4)
- 청평역 근처 경춘선 폐철도 자연생태공간으로 복원(조선일보 1. 4)
- 외연발전 KTX광명역, 외국기업 속속 유치 (한국일보 1. 4)
- "KTX 송정~목포구간 신규노선 건설을" (동아일보 1. 4)
- 안전 외연한 KTX 역주행, 책임 물어야(국민일보 1. 4)
- KTX 전기적업종 감전 대전서 50대 남 중대(충도일보 1. 4)
- "철도시설선로 재검토를"(대전일보 1. 4)
- "인천공항~평창 KTX 예정대로"(강원도민일보 1. 4)
- 원주~강릉 복선전철 구정면 경우 확정(강원일보 1. 4)
- 춘천~속초 고속철도 잠재까지 증분(강원일보 1. 4)
- 삼척~포항 동해중부선 철도 구대면~ 삼척시내 노선 주목(강원도민일보 1. 4)
- 호남고속철도 KTX 광주역 진입할까(우문일보 1. 4)
- 대기업들 KTX 운영권 눈독 (서울경제 1. 5)
- 광주~부산 2시간대 돌파 첫발 디딤 (한겨레신문, 서울경제 1. 5)
- 인천공항~평창 기존 철도 활용 (매일경제, 강원일보, 기호일보 1. 5)
- 소문만 무성 '인천~평창 KTX 신설' 우선... 모르쇠 일관 국토부 책임없다(서울신문 1. 5)
- 저속KTX '단호한 대응' 필요한 때 (산남매일 1. 5)
- 철도사고 위험 '평창교차로' 주민숙원 해결 (충청투데이 1. 5)
- 철도건설 설계중 개선 철도시설공단 예산 절감 (금강일보 1. 5)
- 철도시설공단 하라미 홀리맨다 (충도일보 1. 5)
- 철도시설공단 노사, 강경싸움 격화 (금강일보 1. 5)
- 철도노조 민간위탁 반대 집회 (금강일보 1. 5)
- 경전선 광주~순천 전철화사업 시동 (경향신문 1. 6)
- 여주~원주 전철 연차사업 평창올림픽 前 완공 전망 (국민일보 1. 6)
- 철도 운영 민영화는 맞지만... (서울경제 1. 6)
- 3년 연속 고객만족도 '낙제점' (파이낸셜뉴스, 중앙일보, 서울신문 1. 6)
- "KTX 광주~목포 노선 신설" 전남도, 철도산업위 건의 (산남매일 1. 6)
- KTX 정차 '송정역' 당면 (광주매일신문 1. 6)
-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등 추진 타력 (충도일보 1. 6)
-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화는 '대세' (대전일보, 충청일보, 동양일보 1. 6)
- 수도권전철 동계올림픽 이전 개통된다 (강원일보 1. 6)
- CEO 힐링...420년 전 王風, 새기고 곡운 용성을 버린대(서울신문 1. 9)
- 오피니언 - KTX 차량 '고속' 아닌 '안전' 되길(경향신문 1. 9)
- KTX 광주역 진입 논란 재점화(전남일보 1. 9)
- 권선철 의원 "지난해 철도사고 59건 대책 절실"(충청투데이 1. 9)
- 수송능력 악화-광역철도망 '언제쯤'(강원도민일보 1. 9)
- 철도건설사업 9억 신규 발주(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충청투데이, 충도일보 1. 10)
- 광주~부산 2시간 고속철 '열리나(충청투데이 1. 10)
- KTX 광주역 진입 찬반 공방 정부 상반기 중 사전조사용역(경향신문 1. 10)
- KTX 승객 불안 불식시킬 때 되지 않겠나(충청투데이 1. 10)
- 원주~강릉 고속화철도 5월부터 공사 시작 (강원도민일보 1. 10)
- KTX 호남선 민영화추진 소규모 역 사라질까 우려 (전남일보 1. 10)
- 철도공단 투자효율성 높인다(서울신문 1. 11)
- 원주~강릉 고속화철도 5월 착공(서울신문 1. 11)
- 속도 내는 경기 역세권 개발(서울신문 1. 11)
- 올 9조4천억 규모 철도건설 발주(국민일보 1. 11)
- KTX 민영화 논쟁...113년 독점 깨진다(중앙일보 1. 11)
- 고속철 경쟁도입 폐해 최소화하려면(동아일보 1. 11)
- KTX 경쟁 도입의 허구(경향신문 1. 11)
- KTX 광주역 진입 북구-광산구 갈등(광주일보 1. 11)
- 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 신중해야(광남일보 1. 11)
- KTX 기성 427명 호남고속철 민간개량 반대성명 발표(충청투데이 1. 11)
- 원주~강릉 고속철, 그 너머를 생각하자(강원도민일보 1. 11)
- 내일 원주~여주 수도권전철 추진위한 토론회(강원일보 1. 11)
- 원주~강릉 복선철, 올해3조원 풀린다(강원일보 1. 11)
- 광주 KTX 정차역 논란 다시 시끌(동아일보 1. 12)
- KTX 민영화, 전철개량(서울신문 1. 12)
- KTX 민간개량 공개 논의해야(중앙일보 1. 12)
- KTX 민영화 반발 확산되나(대전일보 1. 12)
- KTX 민영화 추진 성급(충도일보 1. 12)
-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좌우' (강원도민일보 1. 12)
- 철도산업도 경쟁해야 한다(한국일보 1. 13)
- 코레일 방만경영 더 이상 못버(문화일보 1. 13)
- 'KTX 철도 민영화' 이렇게 생각한다(서울경제 1. 13)
- 코레일 철도민영화 반발 확산(내일신문 1. 13)
- 민간기업도 '군함' 철도경쟁 속도낸다(문화일보 1. 13)
- 輿비대위 'KTX 민간위탁 제동 걸겠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매일경제, 파이낸셜, 서울경제, 국민일보 1. 13)
- "철도요금 인상 부채질" "대기업에 특혜" (서울경제 1. 13)
- 여, KTX 민영화 반대 비대위 MB와 선긋기(경향신문 1. 13)
- 한·미 FAT 발효하면 철도민영화 못 되돌리(경향신문 1. 13)
- 도대체 누구를 위해 고속철도 민영화 밀어붙이나(한겨레 1. 13)
- 여당 KTX 민영화 제동 걸어도(한겨레신문 1. 13)
- 철도시설공단 '호남·수도권 고속철운영 경쟁구조 도입'피해(파이낸셜뉴스 1. 13)
- 철도시설공단 '호남·수도권 고속철운영 경쟁구조 도입'피해(파이낸셜뉴스 1. 13)
- "호남고속철 등 KTX 민영화 수정 노력" (광주일보 1. 13)
- KTX 광주역 진입 놓고 북구-광산구 의회도 공방(광주일보 1. 13)
- KTX 민영화 너무 조급하다(충청투데이 1. 13)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수도권 고속철도 운영 경쟁구조 도입'피해(파이낸셜, 뉴시스 1. 13)
- 철도사업도 코레일 독점 깬 때(동아일보 1. 13)
- 113년 철도독점 이제는 끝내자(노) : 노영민 기자 등 독점 폐해 경쟁만이 효율개선 해결책 (해럴드경제 1. 13)
- SNS에 휘둘린 한나라당 '철도개혁 제동' 파문 확산(문화일보 1. 13번)
- 요금폭탄? 시설은 국가소유... 인요인인 더 커(문화일보 1. 13)
- KTX운영 민간개방, 코레일의 비효율 개선할 기회다(문화일보 1. 13번)

경조사

■ 충청본부 건설처 강윤수차장 빙모상
- 발인 : 2012년 1월 12일